

##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수준별 현황 및 촉발요인 연구

양미진(楊美珍)\* · 김태성(金泰成)\*\* · 이자영(李茲嶸)\*\*\*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수준에 따른 개입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사회성 척도를 통해 자발적 응답자 총 4,5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에 따른 은둔형 부적응 수준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위험군 이상의 청소년 10명을 심층 면접하여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하고 유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이 위험군 이상의 은둔형부적응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 부적응의 위험군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는 학교부적응, 가족 간의 갈등, 빈약한 친구관계이며, 은둔형 부적응의 유지요인으로는 사회적 철회, 낮과 밤이 바뀐 생활, 공격성, 가족의 지지 부족, 무력함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촉발요인

## I. 서론

청소년은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 내의 부적응과 함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단절과 같은 가족문제는 청소년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작

\* 한국청소년상담원 복지개발팀 팀장

\*\* 한국청소년상담원 통합지원관리팀 선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선임상담원

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개인에게 부가되는 스트레스는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족체계의 변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으나 부정적으로는 인터넷 중독,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진학 및 졸업 후의 미취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방법 또한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자신의 문제 상황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 이러한 갈등상황으로부터 회피해 버리고,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즉, 은둔형 부적응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회적 철회를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부진, 장기적인 학습장애, 잦은 결석, 등교거부, 집단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뿐 아니라 비행,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황순길외, 2005).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폭행, 존속살인, 타살과 같은 사회범죄의 가능성으로 인해 각별한 관심이과 실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여인중(2005)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중고등학교에서만 5만 명 이상의 중도탈락자, 곧 등교 거부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력지상주의와 입시교육 위주의 현재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외부와의 단절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어떠한 원인에서든 외부와의 단절은 은둔형 부적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은둔형부적응 유형 중 그 정도가 심각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연령대 비율이 10대가 14%, 20대가 51%, 30대 이상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0.30대의 성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홍현표, 2007)는 은둔형 부적응 문제의 잠재된 위험성 이외에도 실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어떤 개입과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은둔형 부적응자의 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하는 연령대의 청장년이 도리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전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양미진 등(2007) 연구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하나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에 대하여 비사회적으로 위축된 형태인 부적응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상처를 주는 세상을 피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린다. 이들은 가족과의 대화 단절,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 등 관계적 철회를 보이며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됨에 따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은둔하고 있는 기간이 장기화되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지승희,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6). 이러한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은 지금까지 '왕따' '외톨이', '등교거부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졌다. 기존의 따돌림에 대한 연구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은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주장성, 낮은 자존감, 지나친 타인지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김창대, 1999).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과는 달리 왕따나 외톨이가 되는 이유가 공격성보다 사회적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보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숫자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시형(2000)의 연구에서도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공감성, 주장성, 자기조절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의 불안이나 불편감이 높으며,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하고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등교거부 청소년이나 은둔형부적응 청소년과 유사하며, 현재까지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특성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양미진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철회 등 관계의 문제를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특징으로 정의하였으나 이후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을 청소년기에 주된 문제로 제기되면 서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를 6개월 이상 방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지내는 사회적 철회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였다(박현숙, 200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은둔형외톨이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매체보도를 통해 은둔형부적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실제로 확인된 은둔형 외톨이가 숫자가 적어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일본과 한국의 '묻지마 살인' 등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련의 사건의 주인공들이 주로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보임에 따라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양미진 등(2006)은 은둔형 부적응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촉발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다. 즉, 외동이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양육방식의 변화, 인터넷의 몰입으로 인한 폐쇄적인 대인관계 형태, 학교 부적응, 따돌림, 학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인예민성, 불안, 공격성,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사회적 철회 행동 등을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은둔형 부적응을 상태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은둔형 부적응 정도를 사회적 관계를 철회하는 특성인 '사회성'이란 개념으로 평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은둔형 부적응 수준을 잠재적 위

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사회성 척도를 개발하였다(양미진 등, 2007). 본 척도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그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하여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수준별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성별과 연령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연구 결과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박소영, 2000; 장봉우, 김태완, 조경옥, 김용인, 1997; 윤진, 최정훈, 1999;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양미진 등(2006)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과 정신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남자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여자청소년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공포, 정신증이 더 많이 나타났다(조수철, 이영식, 1990; 이현만, 한성희, 1996)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학생의 경우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나 전문가, 혹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지나 태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양미진 등, 2006)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문제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에 차이는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양미진 외, 2006). Papalia, Olds & Feldman(1989)은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인 청소년초기와 2차성징이 완결되는 청소년 중기, 그리고 변화가 완만해지는 청소년 후기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충동조절, 적응 등의 측면에서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였다(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재인용) 이외에도 신체 생리적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은 신체의 변화에 민감해 지고 얼굴, 신장, 몸무게, 또래 내에서의 발달의 차이를 고민한다. 실제로 많은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1996). 인지발달측면에 있어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간에도 자아중심성, 객관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양미진 등, 2006). 즉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예민하게 지각하는 내용이 다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또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은 이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 대상인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 드러나지 않으려 하는 특성으로 연구대상의 확보가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상에 사회성 척도를 탑재하여 연구대상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성별, 연령별로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수준별 현황을 분석하고 촉발요인과 유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은둔부적응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그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입,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II. 연구 I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사회성 척도에 응답한 청소년이다. 이 기간 동안 8,140명이 사회성척도에 응답을 하였고, 그중에서 불성실하게 체크한 대상을 제외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인 14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4,5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연령						전체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성별	남	빈도	165	130	145	176	147	142	905
		%	3.6	2.9	3.2	3.9	3.2	3.1	19.9
	여	빈도	532	528	669	761	697	448	3635
		%	11.7	11.6	14.7	16.8	15.4	9.9	80.1
전체	빈도	697	658	814	937	844	590	4540	
	%	15.4	14.5	17.9	20.6	18.6	13.0	100.0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905명(19.9%), 여학생 3,635명(80.1%)으로 여학생이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7세 20.6%, 18세 18.6% 순으로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19세 13.0%, 15세 14.5%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는 양미진 등(2007)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이다. 사회성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대인예민성, 공격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은 6문항, 사회적 기술은 7문항, 사회적 철회는 6문항, 대인에 민성은 7문항, 공격성은 6문항으로 “매우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방식으로 요인 5개를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문항은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5개 요인의 전체 분산 설명량은 58.93%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척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연령에 따라 위기수준에 차이를 분석하였고, 성별, 연령에 따라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응답자의 위기 수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 점수를 기준으로 정상군,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위기수준 분류는 사회성 점수를 T점수로 표준화한 것으로, T점수 63점 미만인 경우 정상군, 63점에서 70점미만인 경우 잠재적 위험군, 70점 이상인 경우에 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서 “3개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고, 일도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54.8%가 정상 범주에 속해 있고 45.2%가 위기 수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1.4%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11.3%가 위험군, 32.5%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황순길 등(2005)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7.1%가 은둔형부적응의 잠재군, 2.3%가 위험군, 0.3%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사회성척도에 접속한 응답자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남녀에 따른 위기 수준 분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기수준의 정상군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X^2(3)=26.26, p<.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위기수준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4세 청소년은 65.6%가 정상군에 속하였지만 15세는 54.6%, 16세는 55.4%, 17

<표 2> 성별에 따른 위기수준 분포 및 차이검증

		위기 수준				전체	X <sup>2</sup>	
		정상군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성별	남	빈도	506	251	124	24	905	26.26***
		전체 %	55.9	27.7	13.7	2.7	100.0	
	여	빈도	1982	1224	389	40	3635	
		전체 %	54.5	33.7	10.7	1.1	100.0	
전체	빈도	2488	1475	513	64	4540		
	전체 %	54.8	32.5	11.3	1.4	100.0		

\*\*\*p <.001

<표 3> 연령별 위기 수준 분포 및 차이검증

		나이						전체	X <sup>2</sup>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위기 수준	정상군	빈도	457	359	451	489	440	292	2488	64.39***
		%	65.6	54.6	55.4	52.2	52.1	49.5	54.8	
	잠재적 위험군	빈도	190	205	262	328	297	193	1475	
		%	27.3	31.2	32.2	35.0	35.2	32.7	32.5	
	위험군	빈도	42	82	95	107	93	94	513	
		%	6.0	12.5	11.7	11.4	11.0	15.9	11.3	
	고위험군	빈도	8	12	6	13	14	11	64	
		%	1.1	1.8	0.7	1.4	1.7	1.9	1.4	
	전체	빈도	697	658	814	937	844	590	454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001

세는 52.2%로 18세는 52.1%, 19세는 49.5%로 점차 작아지는 반면, 고위험군의 경우는 14세가 1.1%, 위험군의 경우 6.0%이지만 19세의 경우 1.9%가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15.9%가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위험군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X<sup>2</sup>(5)=64.39, 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은둔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사회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4>과 같다. 사회성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538]=11.57,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F[1,4538]=148.74, p<.001), 사회철회(F[1,4538]=12.08, p<.001)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예민성(F[1,4538]=15.36, p<.001)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불안(F[1,4538]=.46,

&lt;표 4&gt; 성별에 따른 사회성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

	성별			F
	남(n=905)	여(n=3635)	합계	
불안	17.38 (6.86)	17.21 (6.39)	17.24 (6.48)	.46
사회기술	23.57 (5.98)	26.00 (5.20)	25.52 (5.45)	148.74***
사회철회	13.43 (5.82)	12.73 (5.30)	12.87 (5.42)	12.08**
대인예민성	25.05 (7.28)	26.00 (6.34)	25.81 (6.55)	15.36***
공격성	15.90 (5.82)	15.63 (5.44)	15.68 (5.52)	1.69
사회성	95.32(19.59)	97.58(17.39)	97.13(17.87)	11.57**

\*\*  $p < .01$ , \*\*\* $p < .001$ 

ns)과 공격성( $F[1,4538]=1.69$ , ns)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사회성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사회성 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 $F[1,4538]=11.83$ ,  $p < .001$ ).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은둔형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청소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성 척도의 하위 요인에서 보면, 불안( $F[1,4538]=7.02$ ,  $p < .001$ ), 사회적 철회( $F[1,4538]=8.15$ ,  $p < .001$ ), 대인예민성( $F[1,4538]=10.96$ ,  $p < .001$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사회적 기술과 공격성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14세 집단의 사회성 점수가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lt;표 5&gt; 연령에 따른 사회성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

	연령 (N=4540)						F	scheffé
	14세a (n=697)	15세b (n=658)	16세c (n=814)	17세d (n=937)	18세e (n=844)	19세f (n=590)		
불안	16.05 (6.89)	17.48 (6.51)	17.00 (6.61)	17.68 (6.27)	17.42 (6.19)	17.80 (6.36)	7.02***	a>b,d,e,f
사회기술	25.26 (6.09)	25.29 (5.46)	25.71 (5.57)	25.48 (5.15)	25.89 (4.95)	25.35 (5.62)	1.65	
사회적 철회	11.81 (5.43)	12.99 (5.36)	12.73 (5.41)	12.93 (5.20)	13.32 (5.51)	13.46 (5.53)	8.15***	a>b,d,e,f
대인 예민성	24.32 (7.33)	26.12 (6.70)	25.42 (6.79)	26.23 (6.14)	26.24 (6.02)	26.50 (6.14)	10.96***	a>b,d,e,f
공격성	15.37 (5.66)	15.92 (5.81)	15.43 (5.56)	15.86 (5.40)	15.58 (5.40)	16.01 (5.31)	1.72	
사회성	92.81 (19.10)	97.81 (17.96)	96.29 (18.47)	98.44 (17.53)	99.11 (17.01)	97.13 (17.87)	11.83***	a>b,c,d,e,f

\*\*\* $p < .001$



요인으로 불안, 사회적 철회, 대인예민성 요인에서도 14세 집단과 15세, 17세, 18세, 19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연령인 14세와 중학교 2학년 연령인 15세에 사회성 점수의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 Ⅲ. 연구 Ⅱ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하기로 선택한 현장이나 사례를 목적으로 가지고 선택하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된 청소년 중에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지승희 등, 2006)를 사용했을 때, 고위험 또는 위험군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이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으로 남자는 7명, 여자는 3명이었으며, 이들의 나이는 14-19세였다. 면접조사는 석사 이상의 상담자 6명이 실시하였으며, 은둔형부적응청소년 특성상 가정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접한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2. 연구방법

10명의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을 면접은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즉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특성상 폭 넓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연구자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한 채로 집중적인 면접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반구조화 질문을 이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의 주요 문제, 은둔하게 된 계기, 과정 등에 대한 것으로 가정생활, 개인적 특징, 또래관계, 학교생활, 개인생활, 개인적 노력 등 총 6개 영역으로 나누어 면접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 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Agar(1980)의 나선형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선형의 첫 번

째 고리인 자료처리 과정을 시작하여 분석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색인카드, 컴퓨터 파일 등으로 자료를 조직화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단어 또는 문장 형태의 적절한 원문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3인의 평정자(박사1인, 박사수료1인, 박사과정1인)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접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합의를 하여 일차적인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런 후, 평정자 각자 축어록에서 범주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은 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재범주화하였다. 이 때 합의의 준거는 연구진 2인 이상이 일치한 내용(일치율 75%)으로 하였고, 3명 모두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4. 연구 결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을 면접한 결과 학교부적응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빈약한 친구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은둔하면서 사는 현재의 삶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철회,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공격성, 가족의 지지 부재 그리고 무력함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이 현재 보이는 주된 특성으로 현재의 삶을 지속시키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은둔형 부적응의 촉발 요인

###### ① 학교 부적응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은 따돌림 등의 이유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했으며, 그로 인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간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공부도 재미없었고, 게임에 빠지면서 학교도 자주 빠지고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했구요. 결과적으로는 게임하면서 결석을 오래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A, 19세)

학교를 가기는 하나 주로 2교시 후에 가요. 자주 결석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따돌리고 선생님과 관계도 안 좋아져서요. 이젠 안 가는 날이 많다보니 그냥 가기가 싫어요. 계속 다닐지 모르겠어요. (J, 14세)

② 가족 간의 갈등

가족의 갈등,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비난은 은둔 생활을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고, 같이 사는 가족과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해도 별로 관심 없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F, 16세)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부모님이 그러니 학교고 뭐고 다 싫어 지드라구요. (I, 17세)

③ 빈약한 친구 관계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에서 나타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주요 특징이었던 사회적 기술 부족과 대인관계에서 예민한 특성으로 인해 은둔형부적응청소년들은 친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는 없었어요. 현재도 없고. 사람 만나봤자 저를 뭐라 하는 것 같고, 상처도 많이 받으니까 별로 사귀고 싶지 않아요. 인터넷 상에는 있네요. 계는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A, 19세)

지금은 친구 없어요. 학교 때는 한명 정도 있기는 했는데, 뭐..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친구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G, 18세)

2) 은둔형 부적응의 유지 요인

① 사회적 철회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경우,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주요 요인인 사회적 철회와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 혼자 집에 있는 게 좋아요. (B, 16세)

예전에도 집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조용히 혼자 집에 있는 게 좋아요. (C, 17세)

## ②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습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대부분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혼자 TV, 컴퓨터를 하는 등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태도를 보였다.

주로 소설책을 보거나 게임을 해요. 평일 새벽 2-3시경에 자고 오후 1시에 일어난다. 주말에는 5-6시까지 책을 보고 6시 이후에 자고요. 밥은 하루 두끼 정도 먹고.. 밖에는 거의 안 나가죠. (B, 16세)

아침 9시나 10시에 자서 오후에 일어나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다시 9시 10시에 돌아와서 자요. 집에서는 주로 잠을 자면서 보내요. 이런 생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끼 정도만 먹어요. (E, 18세)

## ③ 공격성

은둔형부적응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은 게임이 잘 안 될 때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격성 또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내성적이고, 다중인격 같을 때도 있어요. 주변에서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말을 크게 받아들여서 별거 아닌데도 화를 내는 것 같아요. (D, 15세)

상황에 따라 종종 화가 나요. 게임을 하다가 잘 안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할 때도 그렇고... 화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그래요. (H, 17세)

## ④ 가족의 지지 부재

은둔형부적응청소년들의 가족은 은둔형부적응의 특성을 갖게 하는 촉진적인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대화 부재나 갈등은 은둔형부적응 청소년들이 힘든 것에 대해 공유할 수 없게 하며,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지지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 모두 무뎡뎡해요. 그냥 이대로 살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익숙하고 서로 관심 없는 거죠. (C, 17세)

부모님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가끔 엄마랑은 형식적인 이야기만... 고민이 있어도 야단치거나 아니면 두 분이 싸우니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아요. (E, 18세)

## ⑤ 무력함

은둔형 부적응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를 위한 변화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면 되죠. (F, 16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집에 있는 게 갑갑하기도 한데,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L, 17세)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를 통해 성별, 연령에 따른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수준별 현황을 파악하고, 은둔형부적응을 촉발하고 유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사회성 척도는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척도로써 13세에서 19까지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된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군과 위험군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정신건강의 문제와 은둔형부적응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의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양호 하며(김광일 등 1983; 박소영, 2000; 장봉우 등, 1997; 윤진 등 1999; 양미진 등, 2006) 우울이나 불안 정신증 등 문제가 여자청소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은둔형 부적응의 경우 특히 높은 수준의 위험군 이상의 은둔형 부적응은 남자 청소년에게 높게 나타났다.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부적응의 형태가 관계의 회피와 철회를 나타내며, 이러한 양상 자체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 은둔상태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발견의 어려움을 예측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문제 호소 비율은 여자청소년이 높았으나 동시에 의사나, 전문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구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나 태도를 더욱 중시하고 있

어 외부로의 도움을 적게 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수철, 이영식, 1990; 이현만, 한성희, 1996, 양미진 등, 2006). 즉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쉽게 호소하지 않고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성별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은둔형부적응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특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외부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은둔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조기발견이 어려우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후에 발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군의 분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은둔성향이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특성상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 없이는 쉽게 은둔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 상황이 비교적 장기화될 수 있다(양미진 등, 2007).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수의 누적으로 인해 그 비율이 증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은둔형부적응으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은둔형부적응 청소년 사회성 척도의 하위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 사회적 철회 행동, 대인예민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과 공격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더욱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철회가 이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은둔형부적응의 경우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문제의 자연치유와 호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자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은둔형부적응의 경우 위험군 이상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여자청소년이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 항목별로 살펴 본 결과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대인예민성 경우 여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철회는 남자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의 단절 등 극단적인 형태 이전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호소하기 이전이라도 가정이나 교사 등의 각별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은둔형 부적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는 학교부적응, 가족 간의 갈등, 빈약한 친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로 부터의 회피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촉발된 은둔형 부적응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철회,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공격성, 가족의 지지 부족, 무력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지 요인들은 은둔성향을 더욱 유지하여 위험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은둔형부적응의 원인이 '관계의 어려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이로 인한 주변인들과의 갈등은 은둔형부적응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그 특성을 고찰해보았다는 점에서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양미진 등(2007)이 개발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양미진 등(2007)은 위험군 이상의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표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고위험군 은둔형부적응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사회성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더 많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기존연구 : 고위험군 0.3%, 위험군 7.1% ; 본 연구 : 고위험군 1.4%, 위험군 11.3%) 위험군이 설문에 참가하여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동일한 요인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높게 나타나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그 현황이라든지, 그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성별 및 나이에 따른 특성, 은둔형부적응을 하게 하는 촉발요인 등을 밝혀낸 본 연구는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및 개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남자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소극적이다'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을 촉발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을 바탕으로 한 상담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에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을 단순히 사회 부적응 청소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지원 및 연구가 미흡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은둔형부적응의 특성들은 기존의 사회 부적응 청소년과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 및 개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현황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청소년으로 제한

함으로써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표집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둔형부적응 청소년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촉발요인과 유지요인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친구의 면접을 포함한 다층적 비교나 아니면 종단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분용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제 21회 청소년문제토론포럼 자료집, 7-16.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권일남 (2005). 은둔형 청소년(히키코모리)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단체 역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21권 제6호 통권201호, 7-15.
- 권해수, 금명자,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결과.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1. 정신건강연구, 1, 1-39.
- 김창대 (1999). 따돌림해결을 위한 가정모델. 따돌림 해결을 위한 현장모델 개발. 제 2회 청소년상담 심포지엄 자료집, 21-33.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3). 인터넷중독 자가척도 개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부.
- 박소영 (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 김혜숙, 김창대(1999). 청소년발달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영숙 (2003). 초기 청소년의 위기측정도구 개발. 정신간호학회, 제 12권 제 4호, 425-432.
- 박현숙 (2004). 사회적 히키코모리에 관한 일 연구 : Bowen의 이론을 통해 본 히키코모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재환 (2000). 한국인 사회공포증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 (2000). 청소년 정신과 환자 중 외톨이 혹은 왕따 특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 11권 2호. 240-251.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 14권 제 1호. 63-76.
-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 개발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제 8권 제 2호, 119-134.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지혜문학.
- 윤진, 최정훈 (1999).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16-35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

- 회, 제 13권 제 1호, 147-162.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 (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16권 제2호. 251-264.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2), 167-178.
- 임영식 (2005). 청소년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장봉우, 김태완, 조경옥, 김용인 (1997).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체력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소 논문집, 9(1), 75-88.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5.
- 지승희,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허묘연 (2005). 한국의 사회부적응 청소년실태 : '사회적 회피현상'을 중심으로. 2005 한·일 국제심포지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백서.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 가이드북.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현표 (2007). 은둔형외톨이 치료를 위한 개인적 단위공간 설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논문.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境泉洋, 石川信一, 佐藤寛, 坂野雄二 (2004). ひきこもりの行動チェックリスト(HBCL)の開発及び信頼性と妥当性を検討. 厚生労働省資料集.
- 牟田 武生 (2005). 日本における不登校・ひきこもり・ニートの實態と施策、対応の問題点.. 2005 한·일 국제심포지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齊藤 環 (1999). 社會的 ひきこもり : 終わらない 思春期. 東京, PHP研究所.
- 倉美勝一 (2005). 不登校に對する総合的な對處. 第15回教師及び専門家のための不登校問題研究會の資料集. 文部科學省.

- 厚生労働省 (2002). 地域易学調査によるひきこもりの実体調査. 厚生労働省.
- 厚生労働省 (2004). 10代 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精神保険福祉センタ、保健所、各市などではどう対応するべきか、支援するべきか、厚生労働省.
- Agar, Michael (1980). *The professional stranger: An informal introduction to ethnography*. New York, NY: Academic Press.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A.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eraman, K. L. (1987). The clinical significance and assessment of poor peer relations : peer neglect versus peer rejection. *J Dev Beh Pediatr* 8 : 233-400.
- Cantrell, V. L., & Prinz, R. J. (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 Relation between sociometric statu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84-889.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French, D. D., & Waas, G. A. (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 age children :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252.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53-160.
- Lubin, K. H., LeMare, L. J.,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 Peer Rejection in Childhood. Asher AR, Coie JD(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7-249.
- Newcomb, A. F., Bukowski, W. M.,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palia, D.E., Olds S. W. & Feldman R.D. (1989). *Human Development*, McGraw-Hill.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논문접수 2008년 10월 30일 / 1차 심사 2008년 12월 5일 / 2차 심사 2009년 3월 2일 / 게재승인 2009년 3월 9일

\* 양미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복지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yangmijin@kyci.or.kr

\* 김태성: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통합지원관리팀 선임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hycounsel@kyci.or.kr

\* 이자영: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프로그램개발팀 선임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jayoung@kyci.or.kr

Abstract

## A Study of Maladaptation Level and Stimulator of Youth Social Withdrawal

Yang, Mi-jin\* · Kim, Tae-Sung\*\* · Lee, Ja-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youth social withdrawal characteristics out and to utilize those as a theoretic basis of intervention and treatment for Youth Social Withdrawal who are detected in early stage.

The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adopted in this study is described below:

First,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was sent to 4,540 Youth who were volunteering respondents. Then, categorize their risk levels considering their ages and genders through analyzing those results. Last, deduce the main factors which stir and maintain social withdrawal cocoon behavior through holding in-depth interview with 10 adolescents who belong to high risk group.

As a result, male youth social withdrawal is more than female's and the older respondents tend to answer higher risk factors of social withdrawal behaviors. Stirring factors which provoke social withdrawal behaviors are school maladjustment, family conflict, and limited friendship. And reinforcement factors of social withdrawal behaviors are following: social withdrawal, day-night change, aggression, lack of family support, and feeling of helplessness.

Key words: youth social withdrawal, social withdrawal stimulator

---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ssistant Professo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enior Counselo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enior Counselor